

## 거품은 낭비 아닌 진화와 생명의 기본 '인간' 중심서 벗어나 '자연'의 시선을



거품예찬  
최재천 지음

제목부터 심심치 않다. '거품예찬'이라니. 일반적인 거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이고 그것의 후유증은 예상했던 것보다 크기 마련이다. 더욱이 거품이라면 입에 거품을 물 만큼 질색하는 게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부동산 거품, 증시 거품, 거품 경제 등등... 찾아보면 부정적인 의미와 현상을 드러내는 게 거품이다. 그런데 이것을 예찬한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할 만큼 '거품'과 '잉여'는 쓸모없고 낭비적인 것들로 취급받기 일쑤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거품은 쓸모없고 거주장스러운 것일까. '통섭'의 아이콘 이화여대(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최 교수가 펴낸 '거품예찬'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를 관통하는 색다른 시선을 제공한다. 자연과학

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통섭학자답게 그는 '거품'에 대해 "진화의 기본은 거품이며 자연은 스스로 낭비를 선택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넘쳐야 흐른다. 거품은 언제나 일기 마련이고 그 사이로 삶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

자연은 무모하리만치 많은 알과 씨를 뿌리는 낭비적인 삶의 방식을 택했기에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경쟁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출렁이게 마련이다. 그뿐인가. 우리의 삶도 일면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리 예측하고 자로 잰 듯 균형을 맞추려 부단히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저자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의 시선을 가질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학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그때야 비로소 '거품'은 낭비가 아닌 진화와 생명의 한 방편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넘쳐야 흐른다.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초월적 일차(一者)로부터 유한한 존재들이 나온다. 마치 태양에서 침 없이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구지가·서동요 등 고전시가 현재적 관점 재해석



매콤달콤 맛있는...  
한기호 지음

문학작품 중에 고전시가 하면 어렵게만 생각되는 분야다. 한글이 없던 시대의 시가와 향찰로 표기된 노래들, 그리고 한글 창제 이후에 지어졌지만 지금의 어휘와 문법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노래들이 고전시이다. 학생들도 수능을 공부할 때 원문, 번역문, 배경설명이나 해설만을 기계적으로 훑고 지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고전시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고전 시가의 대표작들을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 발간됐다. 대안학교에서 20여 년 간 국어교사로 재직했던

한기호 씨가 펴낸 '매콤달콤 맛있는 우리 고전시가'는 '구지가'부터 향가, 고려가요, 시조에 이르는 작품을 아우른다.

저자는 고전시가가 단편적인 정보로 흩어지지 않도록 인간사를 꿰뚫는 통찰을 보여준다. 금지, 금기 같은 신화와 인문학 이야기를 풀어놓기도 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을 환기하기도 한다. 나아가 어릴 적 경험을 추억하며 삶의 의미를 음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저자는 고전 시가를 먼 얘기가 아닌 현재적 관점으로 재해석 한다. 단순히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매개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란 것이다. '서동요'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 배경이 된 노래이지만, 저자는 '절대사랑'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거짓을 퍼뜨려 얻은 사기 결혼이라는 것이다.

〈사계절·1만5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기후변화·지구온난화가 생명체 멸종 내뿜다

### 기후와 환경 토크토크

반기성 지음



지난 1월 한반도에 15년 만의 한파가 찾아왔다. 제주 공황이 마비돼 수만 명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황 기능도 완전히 마비되었다. 공황뿐 아니라 제주 곳곳이 '얼음 왕국'에 갇힌 모습이었다.

폭설과 강풍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지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에만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 인류가 자연재해와 맞서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과 이상기후는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이 돼버렸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온난화로 파급된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3세기에 걸쳐 진행된 산업화는 인류에게 기후재앙이라는 부메랑을 안겼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범람과 침수, 지진과 해일 등은 특정 지역과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 공동의 문제



기상 이변은 지구촌 곳곳에 자연재해를 낳고 있다. 사진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알아진 북극권 그린란드 모습. <광주일보 DB자료>

가 된 것이다.

기후변화와 미래의 지구 환경 이야기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케이웨더의 기상예보센터장, 기후산업연구소장 반기성 교수가 펴낸 '기후와 환경 토크토크'는 그동안 날씨와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기후 재해와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이 담겨 있다.

사실 영화와 문학에 등장하는 미래 지구의 기후와 환경은 단지 공상과학의 배경에만 그치지 않는다. 2014년 제작된 '인터스텔라'는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해가는 지구의 모습을 그리다. 영화 속 지구는 산소의 양도 줄어드는 데다 식량의 감소로 옥수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황사까지 몰아닥쳐 사람들은 지구

외의 행성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의 기후 환경은 녹록치 않다. 저자는 영화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재해와 손실, 각국의 대처 사례 등을 들며 '지구 살리기'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떤가? 2015년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앞으로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명백히 반대 방향이다. 현재의 편리와 효율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미래를 저당잡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수력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면 주민이나 NGO들의 대대적인 반대가 벌어진다. 여기에

석탄은 다른 것에 비해 아직은 경제성이 높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달콤함에 빠져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미래를 담보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저자는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고, 해수 온도 상승은 3배 정도 높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과 국민 모두가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동참할 때 미래가 밝아진다고 말한다.

〈프리스마·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노벨상 수상 日 오에 겐자부로 대표 단편집



오에 겐자부로  
오에 겐자부로 지음

전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노벨문학상 수상(1994년) 작가인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80)의 단편을 모은 작품집이 출간됐다. 오에 겐자부로는 2014년 작가 생활을 하는 동안 발표했던 단편 가운데 23편을 뽑아 '오에 겐자부로 자신단편'을 일본에서 펴낸 바 있다. 현대문학은 이 단편집을 21번째 세계문학 단편집 '오에

겐자부로'로 출간했으며 초기, 중기, 후기 단편 등 다양한 작품을 수록했다.

작가는 지난 2013년 '만년양식집'을 마무리 지으며 소설 창작을 마감한다고 선언하면서 "나는 어떤 소설가이고, 어떤 시대를 표현해 왔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리고 이어 '오에 겐자부로 자신단편'을 엮는 일에 착수했으며 마침내 성, 정치, 기도, 용서, 구원 등 그의 문학적 주제가 응집된 한 권의 책을 펴냈다.

1935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오에는 열간의 냉전 다툼을 겪으며 청년기를 보냈다. 이때의 경험으로 그는 인간의 실존 문제에 천착했으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삶을 살게 된다. <현대문학·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안보 극대화' 열망에 주변국과 분쟁 치닫는 中



중국vs아시아...  
조너선 홀스래그 지음

아시아는 지금 또 다른 강대국과의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고, 중국이 품은 위대한 열망은 탄력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주변국들의 갈등은 한계에 이르렀다.

유럽의 아시아 전문가 조너선 홀스래그가 펴낸 '중국 vs 아시아, 그 전쟁의 서

막'은 아시아가 전쟁에 처할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지적으로 흥미롭게, 유려한 솜씨로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아시아에서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팽팽한 긴장상태를 중국 탓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중국의 열망이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는 자국의 안보와 번영을 극대화하려는 열망은 거대한 힘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중국은 주변국들을 압도하고 주변국들을 불평등한 동반자 관계로 내몰며, 점차 분쟁이 있는 영토를 장악할 것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시그마북스·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